

13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Flow Visualization 참가기

이상혁

경상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대학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2008년 여름, 7월 1일부터 4일 까지 예술의 나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ISFV13(13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Flow Visualization)에 참가 하였다. 이번 ISFV13은 “French Committee for Flow Visualization”에서 주관 하였고 이와 함께 FLUVISU12(12th French Congress on Flow Visualization)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어 상당히 큰 규모의 학술대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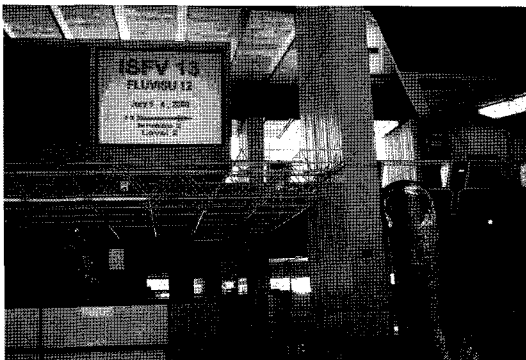
ISFV는 열·유체역학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열·유동 가시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학술대회이다. 1977년 동경에서 처음 개최 되었으며 이후 3년마다 독일, 미국 등에서 열리다가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된 9회째부터는 2년마다 열리고 있다. 특히 2010년 14번째 학술대회는 한국의 대구에서 열릴 계획 이여서 많은 기대가 된다.

ISFV13에 앞서 2006년 독일에서 열렸던 ISFV12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처음 접하는 국제 학회로 교수님이 발표를 하여 배운다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경청만 하였다.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발표와 토론들이 아주 멋있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들과 어울려 유동가시화라는 공통된 논점으로 토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러움과 함께 다음 ISFV13에는 나도 참석하여 발표하고 그들과 토론을 나누고 싶

다는 바램이 생겼다. 이후 나는 2008년 7월 드디어 내가 처음 접했던 국제학회에 이번에는 발표자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막상 이렇게 큰 국제학회에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니 설래 이기도 했지만 발표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도 생겼다.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열심히 하였다. 같은 실험실 대학원 동기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더 잘해야겠다는 경쟁심도 생겼다. 부족했던 연구결과를 추가실험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였고, 영어 발표도 빈틈없이 준비하였다.

드디어 프랑스 니스로 떠나는 날이 되었다. 같이 참석하는 친구의 발표가 첫날 오전에 있어서 여정을 풀기 위해 6월 29일에 인천공항에서 교수님과 함께 출발하였다. 중간 기착지인 뮌헨을 거쳐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오후 9시쯤에 니스에 도착하였다. 오후 9시 이었지만 초저녁처럼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진 않았다. 숙소로 가는 길에 일방통행과 골목길 등이 많아서 길을 헤매다가 밤 11시쯤 숙소에 도착하였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한국의 저녁 8시쯤의 거리처럼 많은 사람들로 거리가 붐비고 있었다. 우리는 긴 여정으로 피곤했는지 간단한 간식을 먹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시차적응 때문인지 아침 일찍 일어났다. 프랑스식 아침 식사를 경험하기위해 아침 8시쯤 밖으로 나가 식당을 찾아 다녔다. 하지만 열려있는 식당이 거



의 없었다. 그나마 열려있는 식당은 빵 몇 조각에 10유로 정도로 비쌌다. 어쩔 수 없이 호텔로 돌아와 호텔에서 제공하는 빵으로 아침을 먹었다. 친구는 내일 있을 발표준비 마무리로 바빠 보였지만 나는 학술대회장 위치도 알아볼 겸 나가서 거리 구경을 하자고 했다. 학술대회장은 숙소에서 자동차로 5분정도 떨어진 “ACROPOLIS CONGRESS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이곳 프랑스 니스는 모나코 공국 및 이탈리아에서 가까운 지중해의 항구도시이자 관광도시로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해변과 아름다운 경치가 많았다. 초저녁까지 니스 주변을 구경하다가 숙소로 돌아와서 내일 있을 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마무리 정리를 하였다.

2008년 7월 1일 오전 8시 30분부터 ISFV13 개최 행사가 진행되었다. 열·유동 가시화 분야에서 가장 큰 국제 학술대회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었다. 마침 Colorado 주립대의 Hertzberg 교수님도 만났다. 2008년 2월 달에 지도 교수님과 공동연구로 두달 정도 Hertzberg 교수님의 연구실에 방문하여 지도를 받은 적이 있었다. 다섯 달 만에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 반가웠다. 11시부터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되었다. 발표는 다섯 개 발표장에서 동시에 이루어 졌으며 학술대회 기간 중 총 39개의 구두발표 session과 1개의 poster session 에서 23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구두발표 session은 가시화 기법 또는 연구 주제별로 나뉘어져 있었고, 첫날 세 번째 session “Specific PIV/PTV”에서 같이 참석한 친구의 발표가 있었다. 친구는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발표를 매끄럽게 잘 하였다. 나 또한 마지막 날 발표시간에 친구처럼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첫날 오전의 모든 session이 끝나고 점심시간을 가졌다. 점심은 스파게티를 먹었다. 이탈리아와 가까운 지역이라서인지 이탈리아식 음식점이 많았다.

오후 4시 부터는 poster session이 열렸다. 모든 poster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가장 흥미 있었던 주제는 “Flow visualization devoted to the science of champagne tasting” 이었다. 샴페인 잔에 숨어있는 과학을 고전적인 유동가시화 기법인 주입 tracer 기법을 이용해 밝혀내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poster의 사진이 상을 받았다고 한다.

학술대회 이틀 째 날은 오전 session 이후 단체여행과 저녁만찬이 있었다. 우리 일행은 단체여행에 참가하지 않고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즐기고, 저녁만찬에 참가하였다. 메뉴는 거위 간 요리였는데 다른 사

람에게 들은 만큼 맛있지 않았다. 심지어 친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프랑스 여성에게 음식이 별로 맛있다고 말해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학술대회 마지막 날 나의 발표가 남아있었다. 나의 발표가 이번 학술대회 중 가장 큰 발표장에서 있어 많은 청중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발표장에 들어서니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많은 청중들이 있지는 않았다. 발표 처음부분은 긴장이 되어 말이 떨렸지만 중반정도 지나서는 긴장감이 없어지고 침착하게 발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발표 중에는 질문이 없었는데 session이 끝난 후 좌장으로 부터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답변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 교수님께서 도와 주셨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을 잘 마무리 하지 못해 아쉬웠다. 4일간의 학술대회 일정이 아주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학술대회 중 만났던 여러 나라 사람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쉬웠다. 비록 발표는 잘하지 못했지만 2년 전 나의 꿈이었던 ISFV13에서 발표를 했다는 것과 나 스스로가 2년전 보다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후배들도 열심히 노력하여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였으면 한다.

